

'1229 마음센터' 광주 설치 추진...유가족과 협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유가족 지원〉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들의 심리 회복을 위한 자조 공간인 '1229 마음센터' (가칭) 조성이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참사 추모와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며 유족, 국회 특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 공간 마련,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다. 강 시장은 "우선 유가족 뿐만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 겪을 트라우마가 우려됨에 따라 전일빌딩245 건물에 '1229 마음센터' (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유가족과 협의를 통

자조공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일빌딩 입지 검토
추모·치유 문화제 개최...관광업계 피해 지원 추진
姜시장 "특별법 내용 유족·국회 특위와 긴밀 소통"

작한다. 강 시장은 "참사 이후 여행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해 관광업계 피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강 시장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며 "유가족이 광주시민인 경우 무료로 일시 제가와 식사 지원 서비스

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중대본회의에서 4촌 이내 유가족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150만원인 긴급돌봄을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90일 이내 216시간 45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대상·시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유가족 1대1 전담공무원 지정, 유가족 위로 각종 행사, 분향소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올해 겨울 첫 '한파 특보' 오늘 '영하 12도' 더 춥다

주말까지 눈...서해안 10cm 이상

이번 주말·휴일 광주·전남은 주중보다 춥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에 이번 겨울 첫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효됐다. ▶관련기사 4면

담양·곡성은 한파 특보가 유지되는 10일 최저기온이 광주·전남에서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나머지 지역의 최저기온도 나주·화순·구례·보성 영하 11도, 광주·영암·순천·장성 영하 10도 등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전망돼 매우 춥겠다. 12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다 그치길 반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기준 광양·순천·여수·고흥·완도를 제외하고 광주·전남 전역에 내려진 대설 특보(함평·영광경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 3~8cm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반면, 동부권의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이다. 특히 서해안은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중 시간당 1~3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일부 지역은 오후 시간대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기온 상승 등의 여파로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눈은 11일 이른 오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북부 서해안 1~5cm다. 최저기온은 전남보다 소폭 오른 영하 9도~영하 1도로 예보됐으나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훨씬 낮을 전망이다. 서해안은 12일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나 적설량은 아직 예보되지 않고 있다. 최저기온은 전남보다 조금 오른 영하 7도~1도로 예상됐다. /한재영기자

Today
신년 인터뷰...김태균 국회의의장 5면
키워드로는 명화 이야기 14면
서건창 1+1년 5억 KIA에 남는다 16면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남도공동모금회



철조망·차벽...2차 집행 '초읽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정문인 버스도로막혀 있다. 경호처는 관저 정문을 비롯해 폭문 곳곳에 철조망 설치에 이어 최사수를 묶었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민주,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

특검 후보자 2명 대법원장이 추천... '비토권'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관련기사 2·3면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발결정이 부결되자 이날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하고 특검 후보자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의 제3자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1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사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경찰공조수사본부와 과부침주(破釜沈舟·술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겨울철 난방비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가스요금 줄이고, 캐시백 챙기자!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 및 절감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구글, 네이버 검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https://k-gascashback.or.kr>

절감 예시

절감률	요금절감액	캐시백	절감총액	예상요금
5%(20㎡)	18,860원	1,000원	19,860원	358,600원
10%(40㎡)	37,720원	4,000원	41,720원	336,740원
20%(80㎡)	75,440원	16,000원	91,440원	287,020원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

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

샤워시간 5분 줄이기

한달 사용량 7.2%, 6,826원 절감

에어캡(복벽이), 문풍지, 커튼 활용 틈새 열손실 ↓

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

사용하지 않는 방 분배기 밸브 잠그기

한달 사용량 4.4%, 4,160원 절감

보일러 노후배관 쌓인 오염물질 제거

한달 사용량 5.0%, 4,760원 절감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한달 사용량 10.4%, 9,901원 절감

한달 난방비 절약! 사용량 38% 36,101원 절감!